

김영록 지사, 오늘부터 도민과 소통 나선다

‘도민과 대화’ 2년만에 재개 보성·장흥서 타운홀 미팅 시·군별 역점시책 공유 등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을 위해 14일부터 보성군과 장흥군을 시작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과의 대화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2021년 이후 2년 만에 개최한다.

‘2023년 도민과의 대화’에선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일명 3고로 어려운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시·군별 역점시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비전과 주요 사업 등을 도지

사가 직접 도민에게 설명하고, 대화를 직접 주재하는 등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참석자와 소통을 극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엠지(MZ)세대와 출향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참여뿐 아니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쌍방향 소통도 추진하고, 불임족지를 통해 도지사가 즉문 즉답하는 알찬 시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순회 기간 시·군별 중점 추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 약속과 함께 지역 현안 등 시·군의 재정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대화에서 2022-2023년 전남방문의 해를 비롯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10월)·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1월) 등 대형 행사에

대한 성공 개최 분위기 확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22개 시·군을 방문해 시·군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행사다.

전남도는 원활한 행사 진행과 다중 밀집행사의 안전을 위해 질서 유지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전남도, 고독사 실무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대상자 발굴·상담기법 등 교육

전남도의 고독사 증가율이 매년 높아진다는 본보 보도(2월15일자 5면)와 관련, 전남도가 고독사 등 신 복지사각지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도 전체가구의 35.1%)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및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상담기법, 서비스

연계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통합사례관리는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찾아가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일선 행정력의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곽영호 사회복지과장은 “고독사 위험군, 은둔형 외톨이 등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인만큼 실무중심으로 실시하겠다. 앞으로 고독사 위험군 은둔형 외톨이 등 위기가구 발굴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김 지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면담

김영록(왼쪽) 전남도지사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시·첨단농산업 융합합 지구 조성 및 K-김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저소득층 1회 적립금 700원 마일리지 지원한도 월 60회

광주시내버스·지하철을 이용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알뜰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견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만큼 마일리지 적립되고, 카드사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아낄 수 있다.

광주시는 13일 공공요금 인상 등 지속되는 고물가에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 혜택에 저소득층의 적립금과 마일리지 적립한도를 늘리고 가입카드사를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

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월부터 저소득층 마일리지 적립금을 1회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고 마일리지 적립한도는 7월부터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확대(월 1만5000원~4만2000원 절감)키로 했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최초 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자동화해 주민등록등본·저소득 증빙자료 등 서류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출발·도착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마일리지 적립할 수 있도록 즐겨찾기 구간을 설정토록 하고, 도보 수 측정 방식도 도입했다.

알뜰교통카드는 알뜰카드 홈페이지(www.alcard.kr) 또는 은행·카드사를 통해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한 후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와 앱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박상지 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100곳 토양오염 실태 조사

폐기물 처리·재활용 관련 지역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16개 지역 100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오염지역 정화를 추진하는 곳을 골라조사한다.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중점조사지역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등으로 이들 지역이

전체 조사지역의 20% 이상 배정되도록 돼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2월 조사지점을 16개 지역, 100곳으로 확정했다.

연구원은 또 자치구와 함께 3월부터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휘발성 유기물질 등 23개 항목을 검사한 뒤 오는 10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원광석과 고철 등을 보관·사용중인 4개 지역에서 불소와 아연, 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화 조치명령과 함께 정밀조사 등 복원작업을 추진 중이다.

박상지 기자

광주시, 실감콘텐츠 인재 육성 산·학·연 맞손

교육·연구기관 등 41곳과 협약

광주시가 실감콘텐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업체계를 구축, 미래 문화산업 융합인재도시 광주 실현에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는 13일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41개 기관·기업과 실감콘텐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실감콘텐츠 교육협업체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 실감콘텐츠 산업과 인재 양성을 주제로 한 포럼도 함께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비롯, 조선대·호남대·광주대·GIST(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전남대와 경희대 산학협력단 등 교육·연구기관 9곳, 기업체 31곳(광주 13·지역 외 18)이 참여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실감콘텐츠 분야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기업이 상당수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다.

주요 협약 기업으로는 △IT 신기술 개발·운용 분야 (주)CJ올리브네트웍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제작에 참여한 VFX·뉴미디어 전문기업 (주)위지웍스튜디오 △테마파크 ‘아라페뮤지엄’ 등 디지털 기술과 공간활용 콘텐츠 제작기업 (주)디스트릭트 △결그룹 ‘에스파’ 가상아바타 등 영상VFX와 리얼타임콘텐츠 제작기업 (주)자이언트스텝 △가상인간 ‘로지’,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속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주)로커스 △엔리얼엔진 활용 콘솔게임 개발 기업 (주)에픽게임즈코리아 등 굵직한 콘텐츠 기업들이 참여했다.

시와 이들 기업은 미래 실감콘텐츠산업 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비롯해 인력양성 교육서비스 발굴, GCC 장비·시설을 활용한 프로젝트와 교육운영 협력, 실감콘텐츠 산업 자원 확보와 국가공모사업 유치에 힘을 모어나갈 계획이다.

최지현 시의원 “광주 자전거 수송 부담률 20년째 2%대”

광주지역 자전거 수송 부담률이 20년째 2%대에 머물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지현 광주시의원(광산구1·사진)은 13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시 자전거 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광주의 자전거 이용률은 2%대로 유럽 주요 도시 이용률(10~60%)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며 “자전



거 이용을 녹색 교통 수단으로서 확대하기 위한 시민 체험형 자전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광주시민의 2%대만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송 부담률은 해당 교통수단

의 수송 비율로 승용차의 수송 부담률은 49.1%에 이른다.

최 의원은 “광주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정책이 승용차 중심으로 집중된 것은 기후위기에 반하는 정책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교통계획에 반영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등 환경 조성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유인책 제공 △자전거 정책의 시민 합의·공유 등을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